

## 박지성, 첼시 상대 7호골 노린다



박지성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개인 최다 6호골을 폭발한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라이벌 첼시와 경기에서 연속골에 도전한다. 박지성은 20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시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리는 2010~2011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첼시와 원정 경기에 나선다. 지난 14일 아스널과 경기에서 시즌 개인 최다인 6호골 맛을 본 박지성은 첼시와 경기에서 연속골을 넣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이청용, 선덜랜드전 공격포인트 도전 박주영·손흥민 등 해외파 주말 총출동

박지성은 27일 선덜랜드와 경기를 끝내고 바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라 올 시즌 목표로 내건 두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려면 미리 골망을 흔들어야 한다. 맨유로서도 올 시즌 처음으로 맞붙는 '속적' 첼시를 반드시 꺾고 단독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 절정에 오른 박지성의 골감각이 계속 되길 기대하고 있다. 첼시는 비록 4위에 머물러 있지만 1위 맨유(승점 34)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해 안방에서 맨유를 잡고 선두권으로 도약해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태세다. '블루 드래곤' 이청용(22·볼턴)은 박지성보다 이틀 앞선 18일 오후 선덜랜드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출격한다. 올 시즌 17경기 모두 선발출전하는 활약으로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랭킹 34위에 오른 이청용(2골5도움)은 3경기 만의 공격포인트에 도전한다. 6승8무3패로 6위에 올라 있는 볼턴은 이날 경기에서 7위 선덜랜드의 추격을 물리치고 선두권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5위 토트넘과는 승점 1점차다.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서 뛰는 박주영, 손흥민도 주말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박주영(25·AS모나코)은 19일 오전 5시 파리 생제르맹과 원정 경기에서 나선다. 17위에 머물며 강등권 위기에서 헤어나 오지 못하고 있는 모나코(2승9무6패)를 박주영이 오랜만의 득점포 가동으로 살려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손흥민(18·함부르크SV)은 18일 오전 4시 30분 뮌헨 글라트와 정규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출격한다. 세 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했다가 지난 경기에서 후반 교체 선수로 그라운드를 밟았던 손흥민이 지난 세 경기에서 침묵했던 득점 감각을 되살릴 수 있을지 흥미롭다. 손흥민은 최근 독일 함부르크 지역 신문이 선정한 '11월 함부르크 최고의 선수'에 뽑히며 자타공인 함부르크의 대들보로 우뚝 섰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의 기성용(21)과 차두리(30)도 18일 오후 9시 45분 해밀턴과 정규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동반 출격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이청용

◇해외파 주말 경기 일정  
 ▲18일(토) 손흥민 함부르크-뮌헨글라트(4시30분, 원정) 이청용 볼턴-선덜랜드(21시45분, 원정) 기성용 차두리 셀틱-해밀턴(21시45분, 원정)  
 ▲19일(일) 박주영 모나코-파리 생제르맹(5시, 원정)  
 ▲20일(월) 박지성 맨유-첼시(1시, 원정)

## “1R 전승이나” “연패 탈출이나”

### 남자배구 대한항공-삼성화재 오늘 인천서 맞대결 관심

‘4연승 여세를 몰아 삼성화재까지 꺾고 1라운드를 전승으로 마치겠다(대한항공), 대한항공을 제물 삼아 2연패 사슬을 끊고 끝까지 추락 위기에서 벗어나겠다(삼성화재)’ 2010~2011시즌 초반 남자 프로배구에서 거센 돌풍을 일으키는 대한항공과 부진에 허덕이는 지난 시즌 챔피언 삼성화재가 18일 오후 2시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맞붙는다. 4연승 휘파람을 불며 단독선두를 질주하는 대한항공과 개막전 승리 후 2연패에 빠져 5위까지 밀린 삼성화재가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만난 것이다. ‘특급 용병’ 에반 페이텍(대한항공)과 가빈 슈미트(삼성화재)가 화려 대결을 펼치고 코치-감독 사이였던 신영철 대한항공 감독과 신치용 삼성화재 감독의 사령탑 직각 대결도 흥미롭다. 신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한항공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대한항공은 LIG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 KEPCO45, 우리캐피탈을 잇달아 꺾으며 삼성화재에 이어 상무선형까지 물리친다면 1라운드를 6전 전승으로 마칠 수 있다.

2005년 V리그 출범 후 첫 우승을 노리는 대한항공으로선 초반 주도권을 잡을 좋은 기회다. 대한항공은 미국 출신의 외국인 선수 에반 페이텍이 세터 한선수와 호흡을 맞추며 타점 높은 공격에 탄탄한 수비력까지 겸비했고 ‘레프트 3총사’ 김학민, 곽승석, 신영수도 매서운 화력을 뽐내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남자부 6개 구단 중 가장 많은 202점을 뽑았고 팀 공격 성공률도 55.19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날카로운 창을 보유한 건 물론이고 리베로 최부식과 리베로 못지않은 수비력을 자랑하는 레프트 곽승석이 안정적인 수비망을 구축했다. 이영택과 진상현, 신경수가 포진한 센터진도 든든하다. 대한항공에 맞서는 삼성화재는 베테랑 레프트 석진욱이 무릎 부상 여파로 장기 결장 공백이 생겼지만 최강 ‘좌우 쌍포’인 가빈 슈미트와 박철우가 버티고 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올스타전,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를 획득했던 가빈은 이번 시즌에도 세 경기만 뛰고도 86득점(경기당 평균 28.7점)의 공격력을 보였다. 올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은 ‘인손 거포’ 박철우가 세터 유광우와 호흡이 완전히 맞지 않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스파이크를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세호 男 곤봉던지기 육상 첫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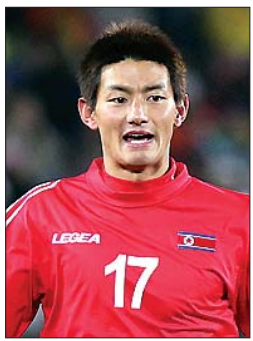
### 장애인AG 금메달 6개 추가 종합 3위 탈환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종합 3위 수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이 폐막을 2일 앞두고 3위로 올라섰다. 이주희(38)와 박세훈(39)은 사격 마지막 경기인 혼성 50m 권총 SH1에서 1~2위를 휩쓸며 한국 사격의 자존심을 살렸다. 김경현(27)과 임우근(23)은 ‘금빛 물살’을 갈랐고, 여자 양궁 리커브 오픈 단체전에서 두 금메달이 나왔다. 박세호는 남자 곤봉던지기에서 한국 육상에 첫 금메달을 안겼고, 조항덕(43)도 핸드사이클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이주희는 17일 중국 광저우 아오티사격장에서 열린 혼성 50m 자유권총 SH1 경기에서 예선과 결선 합계 642.3점을 쏘 2008년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세훈을 따돌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 사격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김경현은 아오티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남자 50m자유형 S4 결승에서 43초06만에

결승점을 찍어 민병연(25)을 제치고 자신의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우근도 100m평영 SB5에서 1분38초76의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세호는 곤봉던지기 F31/32/51 경기에서 26.09m를 던져 822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땀다. 지난 13일 랭킹라운드에서 세계신기록을 썼던 고희수(43)와 이화숙(44), 김란숙(43)은 양궁 여자 리커브 오픈팀은 결승에서 개최국 중국을 195-190으로 물리쳤다. 아직 ‘노골드’에 머물고 있는 탁구에서는 김영건(26·TT1-3)과 문성해(32·TT4)가 첫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결승에서 각각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금메달 21개와 은메달 32개, 동메달 24개로 이란을 밀어내고 중국과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로 올라섰다. 중국은 금메달을 143개나 휩쓸며 종합 선두 수상을 눈앞에 뒀다. /연합뉴스

## 北 축구대표 안영학 日 가시와서 뚫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드필더 안영학(32)이 일본 프로축구 가시와 레이솔로 이적했다고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가 17일 밝혔다.



일본 J리그 알비렉스 니가타, 나고야 그램퍼스를 거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K리그 부산, 수원에서 뛰었던 안영학은 올해 오미야로 이적해 19경기에 나왔지만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일본 J리그에서는 1, 2부를 통틀어 모두 143경기에서 9골을 넣었고 K리그에서는 89경기에 나와 역시 9골을 터뜨렸다. 북한 대표로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해 세 경기에 모두 뛰었던 안영학은 “가시와에 입단해 기쁘다. 팀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부리그 우승을 차지한 가시와는 J1리그로 승격됐다. /연합뉴스



### 비커라 내가 간다 태클을 당하고 있다.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경기장에서 열린 NFL 미식축구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팀의 데니얼 위커(46번)가 샌디에고 차저스팀의 맨트온 애플화이트(90번)와 스티브 그레고리(28)에게

### AG ‘열짱’ 이슬아·손연재 프로농구 시구자 나선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열짱 스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여수 출신의 바둑기사 이슬아(19)와 리듬체조 손연재(16·세종)가 나란히 19일 열리는 프로농구 경기 시구자로 나선다. 리듬체조에서 동메달을 따낸 손연재는 19일 오후 5시 천안 KB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삼성생명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천안

국민은행과 구리 KDB생명의 경기 시구를 하고 경기 중 이벤트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손연재는 올해부터 국민은행 후원을 받고 있다. 바둑 2관왕에 올랐던 이슬아는 19일 오후 2시10분부터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SK와 서울 삼성 전 시구를 맡았다. KBS-1TV가 생중계해 시작 시간이 오후 3시에서 50분 앞당겨진 이날 경기에는 이슬아 외에도 박영훈 9단 등 바둑 기사들이 직접 관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